



Kiaf SEOUL

3 – 6 September 2026
VIP Preview: 2 September

Booth A 85
The Page Gallery





André Butzer



안드레 부처(b.1973, 슈투트가르트)는 유럽의 표현주의와 미국의 대중문화를 융합한 회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미술 작가로, 삶과 죽음, 소비와 오락, 대중 문화 등 20세기의 예술적, 정치적 극단을 21세기로 옮겨와 자신의 그림 속에 녹여왔다. 부처의 회화에서 등장하는 커다란 눈과 손, 부풀어 오른 머리를 가진 인물들은 그의 '공상과학 표현주의(Science Fiction-Expressionism)'을 완성시키는 요소이다. 이러한 만화적인 인물들은 1999년에 처음 작품에 등장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변형되면서 회화의 중요한 모티브로 자리 잡는다.

안드레 부처는 벨기에 유펜 IKOB 현대미술관, 독일 하노버 게스트너 학회, 독일 뉘른베르크 쿤스트할레, 독일 로 이틀링겐 쿤스트베라인, 일본 호쿠토 빛의 박물관, 스웨덴 백세 쿤스트할레, 중국 상하이 유즈 미술관 등 세계 주요 미술 기관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그의 작품은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본의 독일 연방 공화국 현대미술 컬렉션, 함부르크의 데이히토할렌, 독일 베를린 국립 미술관의 동판화 박물관, 로스앤젤레스 마르시아노 아트 컬렉션, 베를린의 국립 갤러리/함부르크 반호프 박물관, 로스앤젤레스 LACMA, 로스앤젤레스 MOCA, 브레멘 파울라 모더 존 베케 미술관 등에 소장 되어있다.

André Butzer (b. 1973, Stuttgart) lives in Berlin-Wannsee. Since the 1990s, André Butzer has been creating his own distinctive language through a fusion of German expressionism and American pop culture, attempting to transcend the artistic, political, and social extremes of the 20th century: life and death, industrialization and mass consumption. André Butzer constructs his own methodology, 'Science-Fiction Expressionism', as a futuristic descendant of traditional German expressionism. Confronting and embracing extreme realities, the artist used references ranging from corporate names to cartoon characters early in his career to compress 20th-century cultural, political, and technological symbols into distinctively dense paintings. Executed in a rough impasto technique, early works were an effort to translate uncertain hope and desolation into unstable pictorial structures, which he hoped would lead to transcendent truths.

His work is part of the collections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Contemporary Art Collec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onn; Deichtorhallen Hamburg; Kupferstichkabinett, Berlin State Museums, Berlin, Germany; Marciano Art Collection, Los Angeles; Nationalgalerie / Hamburger Bahnhof -Museum für Gegenwart, Berlin; LACMA, Los Angeles; MOCA, Los Angeles; Paula Modersohn-Becker Museum, Bremen.



André Butzer

Untitled
2022
Acrylic on canvas
248 x 199 cm

Nathan Coley



네이단 콜리는 (b.1967, 영국)는 대형 텍스트 조명 설치 작업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다. 그는 문학 작품, 라디오 프로그램, 일상의 대화 속에서 직접 '수집한' 문장들을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지닌 장소에 배치함으로써 새롭게 생성되는 의미를 탐구해왔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언어와 장소, 믿음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고찰한다.

또 다른 대표 연작 '라이트 박스'는 다의적이고 함축적인 문구를 이상적인 풍경과 결합하여 현실과 이상, 공간과 인간의 관계를 성찰하도록 제안한다. 이 연작은 프랑스 벽지 회사 '주버 앤드 시에(Zuber & Cie)'가 19세기에 제작한 이상적인 유토피아 풍경을 담은 파노라마 월페이퍼를 사용하는데, 그는 이 역사적 이미지를 현대적 텍스트와 병치함으로써 시간과 장소, 역사와 현재가 교차하는 새로운 시각적 서사를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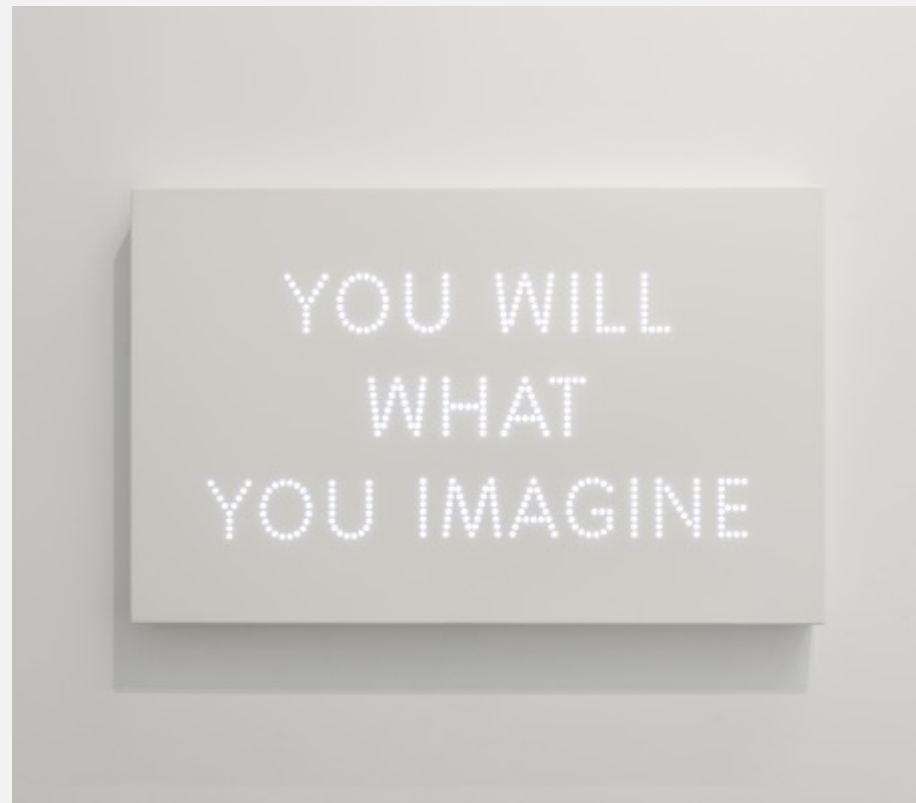
2007년 영국 터너 미술상 후보에 올라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 받았고, 2023년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 정원에 <We Must Cultivate Our Garden>(2006)가 설치되었다. 최근 공공미술 아부다비 비엔날레(2024), 프랑스 리옹 비엔날레(2024)에 참여했다. 현재 포항시립미술관에서 네이단 콜리의 국내 첫 대규모 미술관 개인전이 진행 중이며, 전시는 9월 6일까지 이어진다.

British contemporary artist Nathan Coley (b. 1967) has ear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his large-scale illuminated text installations. By relocating phrases he collects from literary works, radio broadcasts, and everyday conversations to sites detached from their original contexts, he investigates the ways in which new meanings are generated through their encounter with place. Through this process, he continually explores the relationships between language and place, belief and community.

Another of Coley's signature series, Light Boxes, pairs layered, evocative phrases and passages with idealized landscapes, inviting refle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ity and ideals, and between space and humanity. The series incorporates panoramic wallpapers depicting idealized landscapes, produced by the French wallpaper manufacturer Zuber & Cie in the nineteenth century. By juxtaposing these historical images with contemporary text, Coley constructs a new visual narrative in which time and place, history and the present intersect.

His works have been shown at major institutions and biennales worldwide, including the Sydney Biennale, Lyon Biennale, Abu Dhabi Biennale, and Autostrada Biennale (Kosovo).

In 2007, the artist was shortlisted for the Turner Prize in the UK, gaining international recognition, and in 2023, *We Must Cultivate Our Garden* (2006) was installed in the garden of Tate Modern, London. Most recently, the artist has participated in major public art projects at the Abu Dhabi Biennale (2024) and the Lyon Biennale (2024).



Nathan Coley

You Will What You Imagine
2023

Powder coated aluminum, LED lamps
60 x 125 x 8 cm

Petrit Halilaj



페트리트 할릴라이(b.1986, 코소보)는 코소보-베를린-이탈리아를 오가며 스펙터클한 컷피스 작업, 장소특정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장르의 작업활동을 펼친다. 그의 작품은 코소보에서 보낸 유년시절을 배경으로 한다. 1997년 발발한 코소보 전쟁으로 작가의 가족은 모두 알바니아의 난민캠프로 보내졌다. 페트리트는 난민캠프에서 아이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자 마련한 심리프로그램을 통해 그림을 그리게 된다. 당시 난민캠프에 방문한 코피아난 UN사무총장에게 작가는 아이의 시선에서 전쟁의 현실을 표현한 그림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그 장면이 TV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난민캠프에서의 경험과 인연들로 페트리트 할릴라이는 밀라노 브레라 미술 아카데미에 진학하게 된다. 페트리트 할릴라이의 예술은 언제나 상상력을 펼치고 꿈을 꾸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삶을 구현하는 창구이다. 그는 2010년 베를린 비엔날레에 참가하며 국제무대에 데뷔하였다.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코소보 대표 작가로 선정되었고, 이어서 2017년 제57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마리오 메르츠 상과 심사위원 특별언급상을 수상했다. 이후 테이트 세인트아이브스와 뉴욕 뉴뮤지엄 등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2024년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루프 가든에서 개인전을 선보였다.

Petrit Halilaj (b.1986, Kosovo) 's work is deeply rooted in his childhood experiences in Kosovo. When the Kosovo War broke out in 1997, his family was sent to a refugee camp in Albania. It was in this refugee camp that Petrit began drawing through a psychological program aimed at healing the trauma of children. During this time, he conveyed a message of peace to Kofi A. Annan, the then UN Secretary-General, through his artwork that depicted the reality of war from a child's perspective—this moment gained widespread attention on television. His experiences and connections from the refugee camp led him to pursue studies at the Brera Academy of Fine Arts in Milan.

He engages in diverse creative activities, including spectacular cut-piece works, site-specific installations, and performances, traveling between Kosovo, Berlin, and Italy. Petrit Halilaj's art is always a gateway to imagination, dreams, and storytelling, serving as a form of salvation in life.

Petrit Halilaj, a prominent artist representing Kosovo, made his international debut by participating in the 2010 Berlin Biennale. In 2013, he was selected as the representative artist for Kosovo at the Venice Biennale, and in 2017, he received the Mario Merz Prize and a Special Mention Award at the 57th Venice Biennale. Following this, he held numerous solo exhibitions, including at Tate St. Ives and New Museum in New York.



Petrit Halilaj

(Abetare) Snow player
2024
Bronze

153 x 28 x 80 cm (With plinth)



Park Suk Won



박석원(b.1942, 한국)은 한국현대조각사를 대표하는 작가로, 1969년도 부터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AG)로 활동하고, 1975년 현대미술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에콜 드 서울' 전시에 참여했다. 그의 대표 연작 <적의(積意)>는 '절단'과 '축적'이라는 독자적인 조형 방식을 통해 재료 본연의 물성을 탐구하는데, 이를 통해 단색화의 미학을 조각의 영역으로 확장하며 새로운 한국 추상조각의 흐름을 구축했다. 단순한 형태를 띄는 그의 조각은 재현적 요소를 차단하여 재료 본연의 물성과 구조를 강조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 더 나아가 실존의 문제에 도달한다. 한국적인 추상조각의 방향을 모색한 그의 의지는 한지라는 소재를 통해 발현한다. 축적과 반복의 개념은 기하학적으로 절단된 한지를 수평 수직으로 중첩시킨 평면으로 확장되며 구체적인 형상을 나타내기 위한 매개체가 아닌 한지 자체의 물성을 강조한다. 그의 회화는 단순히 색을 칠한 평면이라기보다 자르고, 쌓고, 축적된 물질이 형성한 존재의 구조에 가깝다. 이는 재료를 절단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물질 본연의 물성을 드러내는 그의 조각적 접근이 평면으로 확장된 결과이다.

현재 그의 조각은 국립현대미술관(서울), 서울시립미술관(서울), 아테네 자유공원시립예술센터 (그리스), 산투티르수 조각공원 (포르투갈) 등 유수 기관에 소장 되었으며, 오는 11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앞두고 있다.

Park Suk Won (b.1942, Korea) is a leading figure in the history of Korean contemporary sculpture.

Park Suk Won's Accumulation series is an examination of the potentiality of an oeuvre, hence seeking harmony between men and nature. Throughout the Accumulation series from the 1980s, employing the method of "abstract-cutting" and "accumulation," he has prominently worked with nature-based materials such as stones and wood.

In pursuit of an unorthodox approach to his work, Park Suk Won has kept his distance from handed-down techniques. His methodology built a new flow of Korean abstract sculpture. In the absence of any representational image, he immerses himself in a simplified and abstract form of a sculpture, leading to the question of the existence of men.

The core concepts of "accumulation" and "repetition" also expand in Park Suk Won's two-dimensional works. Embracing the tendency of natural resources or materials, he aggregates the Korean traditional paper, "Hanji," vertically and horizontally on a canvas. Through the practice of repetition and re-assembly, he once again underlines the value of the pure properties of materials while expanding his philosophy to two-dimensional paintings.



Park Suk Won

Accumulation (積意) - 240729
2024

Korean paper on canvas
73 x 73 cm



Park Suk Won

Accumulation (積意) - 25031

2025

Korean paper on canvas

162 x 132 cm

Choi Myoung Young



최명영(b.1941, 한국)은 한국 단색화단의 대표적 작가로, 홍익대학교 재학시절 오리진, 한국아방가르드 협회 등의 창립 멤버로 활약하면서 한국 미술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였다. 그는 회화에서 재현이 지닌 리얼리티의 한계와 모순에서 회화의 비실재성을 자각했다. 그리고 사물의 기하학적 패턴을 추구하는 작품으로부터 회화가 구체적 형태의 재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도출해내고 수용과 변용 과정을 거치며 실험적인 작품으로 나타냈다. 최명영은 평면의 캔버스 위에 검정색, 흰색, 파란색, 황색 등의 단색을 올려 놓은 후, 캔버스에 지문을, 한지에 송곳 그리고 캔버스에 롤러, 브러쉬를 사용하여 각기 다른 평면 조건을 만든다. 평면위에 수차례 쌓여 나가는 자기 성찰적 작업방식을 통해 고요하고 깊은 자신만의 평면을 만들었고, 그 작품 속엔 일기처럼 그의 시간과 순간의 감정이 함께하며, 나아가 그만의 예술적 통찰과 개념이 함축적으로 담겨 고스란히 숨쉬고있다.

최명영은 최근 파리 Almine Rech , 동경화랑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파리 Perrotin Gallery ,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개최된 전시에 참여하였다. 현재 그의 작품은 국립 현대 미술관, 도쿄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다양한 미술관에 소장되어있다.

Choi Myoung Young (b.1941, Korea) is a leading figure in Korean Dansaekhwa. He was born in Haeju, Hwanghae Province, in 1941. While studying at Hongik University, he actively participated as a founding member of the Origin group and the Korean Avant-Garde Association, constantly reflecting on the identity of Korean art. He recognized the non-representational nature of painting through the limitations and contradictions of reality in representation. From works that pursued geometric patterns of objects, he drew the conclusion that painting need not be bound by the representation of concrete forms, and he expressed this idea through experimental works developed through processes of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On the flat surface of the canvas, Choi applied monochrome colors such as black, white, blue, and yellow, then created different surface conditions by leaving fingerprints on the canvas, using an awl on hanji (Korean paper), and working with rollers and brushes on canvas. Through his self-reflective working method of repeatedly layering the surface, he created a quiet and profound pictorial plane uniquely his own. His works contain traces of his time and emotions, like a diary, and breathe with his artistic insight and concepts.

More recently, Choi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Almine Rech in Paris and Tokyo Gallery, and has also participated in exhibitions at Perrotin Gallery in Paris and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His works are part of collections in major museums including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the Tokyo Metropolitan Art Museum, and the Seoul Museum of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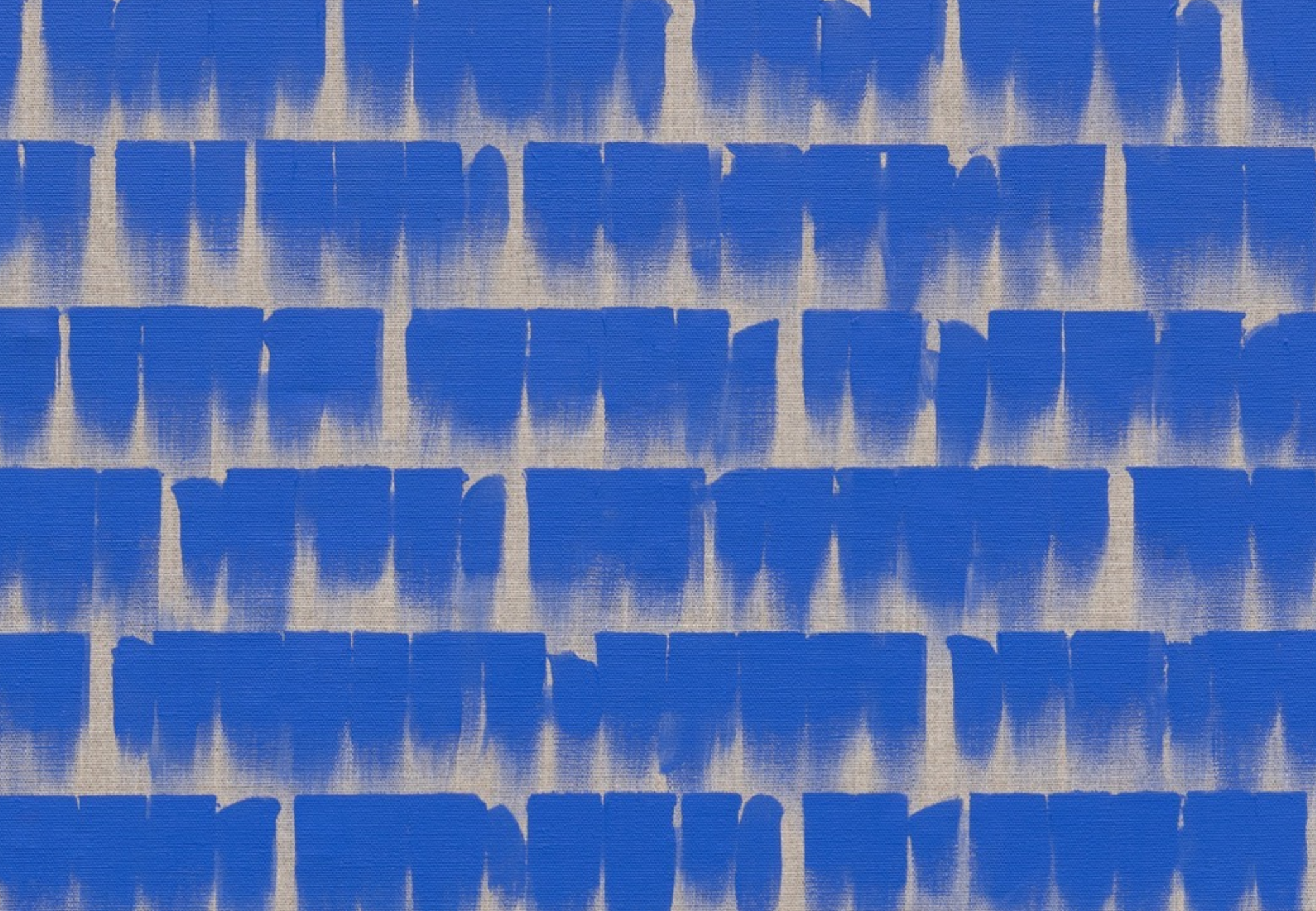
Choi Myoung Young

Conditional Plane 24-14

2024

Acrylic on canvas

117 × 91 cm



Huh Dal Jae



허달재 (b.1952, 한국)는 한국 문인화의 전통을 동시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온 대표적인 작가이다. 남종화의 거장 의재 허백련의 손자인 그는 수묵화가 지닌 정신적 깊이를 계승하는 동시에, 파격적인 구성과 절제된 색채를 통해 현대적인 미감을 탐구해 왔다. 이처럼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면서도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잇는 독자적인 회화 언어를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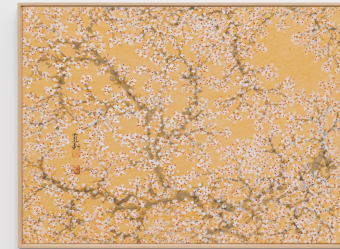
그의 대표 연작인 백매, 홍매, 돌, 바다는 자연의 본질적인 생명력을 포착하는 작가의 뛰어난 조형 감각을 잘 보여준다. 백매 연작은 먹과 여백의 균형에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강인한 생명력과 순수함을 시각화한다. 홍매 연작은 은은한 온기를 머금은 붉은 매화를 통해 겨울을 뚫고 피어나는 생명의 역동적인 힘을 표현한다. 돌 연작에서는 바위의 물리적 형태를 절제하여 그 안에 내재된 본질적이고 정신적인 무게감을 드러낸다. 한편 바다 연작은 섬세한 농담의 변화와 유려한 수묵의 번짐을 통해 물이 지닌 끝없는 리듬을 담아낸다. 모든 연작에 걸쳐 힘 있는 필치와 섬세한 공간 운용은 자연에 내재된 생명력과 고결한 정신성을 강조한다.

허달재는 광주비엔날레와 베이징 민생현대미술관 등에서의 전시를 통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주요 기관에 영구 소장되어 있으며, 현대 수묵화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Huh Dal Jae (b.1952, Korea) is a prominent artist who reinterprets the tradition of Korean literati painting through a contemporary lens. As the grandson of master Heo Baek Ryeon, he preserves the spiritual depth of ink wash painting while exploring modern aesthetics through unconventional compositions and restrained colour palettes. Through this innovative yet deeply rooted approach, he has established a unique painterly language that seamlessly bridges tradition and modernity.

His signature series—White Plum Blossoms, Red Plum Blossoms, Stone, and Sea—exemplify his mastery in capturing nature's essential vitality. The White Plum Blossoms visualise resilience and purity, balancing ink and void with a refined, modern touch. The Red Plum Blossoms burst with subtle warmth, depicting the vibrant force of life emerging from winter. In the Stone series, he reduces the physical form of rocks to its fundamental, spiritual weight. Meanwhile, the Sea series portrays the boundless rhythm of water through delicate gradients and fluid ink washes. Across all series, his spirited brushwork and sensitive use of space emphasise the internal energy and noble spirit of the natural world.

Huh has gai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through exhibitions at the Gwangju Biennale and the Minsheng Art Museum in Beijing. His works are held in permanent collections of major institutions, including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MCA), Korea, for successfully opening new horizons in contemporary ink wash painting.



Huh Dal Jae

White Plum Blossoms

2016

Ink on Korean paper, gold leaf

45 x 61 cm



Huh Dal Jae

Peony Blossoms

2020

Ink on Korean paper, gold leaf

191.6 x 130 cm

Chung Sue Jin



정수진(b.1969, 한국)은 현재 뉴욕과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정수진은 시각적 언어를 창조하는 추상미술 작가로 캔버스에 다양한 기법과 구도, 오브제의 형태와 색채를 사용하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와 불가해한 구도로 세밀하게 묘사된 아이콘을 배치한다. 정수진은 시각적 표현을 연구하며 시지각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 자신만의 시각적 요소와 기법을 창조한다. 선과 색의 정확한 사용과 시각언어 및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창조적인 글쓰기를 실천한다. 작가는 다차원적 언어를 발전시키며 웹과 같은 시각적 요소를 도구로 실천한다. 정수진의 작업은 시각적 알레고리로 쉽게 오해되지만 작품 속에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지 않는다. 캔버스를 가득 채운 비현실적인 형상과 물체들을 통해 추상 미술을 떠올리게 하고, 각각의 형상들의 선, 면, 색을 조화롭게 구성하고 묘사하기 위해 실천한다. 정적이고 일상적인 인물, 음식, 양파, 빵, 박카스 한 병, 호두, 텍스트로 추정되는 색과 선은 작가의 시리즈에 일관되게 등장한다. 캔버스 위에 놓인 아이콘들은 어떠한 상징이나 의미, 내레이션 없이 하나의 시각적 요소로서 작가가 의도한 비감정적 시각 언어이다. 정수진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전시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두산아트센터, 선화예술문화재단,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Suejin Chung (b.1969, Korea) is an abstract art artist. Her painting can be easily misunderstood as an expression of allegory; it is an outcome of research and studies that she has invested to create her visual language. A collective of techniques, compositions, forms, and colors build up a scene that involves icons that are portrayed in detail, eccentric composition that is uneasy to grasp, and languages that do not exist in the world. Her studies on visual expression focus on an experience that people perceive visually, converting the visuals and techniques into her own, the effort for the correct use of line and color, and creative writing associated with the theme of visual language and artwork. She uses web-like visuals as tools to test and evolve a multi-dimensional language.

These are the six icons that are consistently featured in her work series: static and mundane figures and oeuvres; onion, bread, a bottle of Bacchus (a Korean caffeinated beverage), and walnut; non-existing beings without a reference; and colored lines that can be assumed as texts. These icons placed on the canvas are to be considered as one of the visual components without any application of symbolism, significance, or narration – as her intention is to share a visual language that does not evoke any kind of sentiment.

Chung Seu Jin has held solo exhibition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he is now based at New York and Seoul. Her works are included in the collections of Korea Art & Cultural Education Service, Seoul, Korea; Doosan Art Center, Seoul, Korea; Sunhwa Art and Culture Foundation, Seoul, Korea; and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Suejin Chung

Brushstroke Observation
2020-2024
Oil on linen
100 x 100 cm



Vio Choe



최비오(b.1971, 한국)는 감각을 통해 포착한 비가시적 시공간의 진동을 리드미컬한 선과 추상 기호로 시각화 한다. 그는 우주와 개체가 하나의 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동양적 세계관과, 양자역학적 존재론에 기반하여, 만물에 대한 경외와 기원의 감각을 수행적으로 풀어낸다.

그의 화면에는 속도감 있게 휘감는 선들과 원초적인 기호들이 무한한 공간 속을 유영하듯 펼쳐지며, 미지의 세계를 기록한 지도처럼, 혹은 고대의 상형문자처럼 다가온다. 찰나와 영원을 넘나드는 비선형적 시간의 흐름에 감응하며, 언어 이전의 감각으로 그려진 드로잉은 빛과 시간의 조건에 따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뉴욕 SVA(School of Visual Arts)에서 PaRappa the Rapper의 아트디렉터로 알려진 로드리 앨런 그린블랫(Rodney Alan Greenblatt) 아래에서 수학하며 시각 언어에 대한 독창적인 감각을 길렀고, 뉴욕에서 아트디렉터 및 게임 디자이너로 활동했다. 이후 독일 아트 카를스루에(2022), 스킵 마이애미 비치(2021), 컨텍스트 아트 마이애미(2019) 등 국제 아트페어에 다수 참가했으며, 독일 헤펜하임 미술협회의 초청 개인전(2017), 베니스 비엔날레 팔라초 벰보 특별 초대전(2019)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Vio Choe (b.1971, Korea) uses his sensibility to capture invisible vibrations within spacetime and visualizes these with rhythmic lines and abstract symbols. Drawing inspiration from both the Eastern worldview, which places the cosmos and its objects on an equal plane, and from quantum ontology, Choe expresses his admiration for the sublime and the origin of all things in a manner reminiscent of a spiritual practitioner.

Swift, swirling lines and primal symbols unfold on his canvases as if they were levitating through infinite space, approaching the viewer like a map of an uncharted world or a tapestry of ancient hieroglyphs. Tuning in to a non-linear flow of time that transcends both the instantaneous and the eternal, Choe's prelingual drawings conjure countless new existences by responding to the infinite variations light and time create.

Choe studied at the School of Visual Arts in New York City and developed a unique sense for visual language under the tutelage of Rodney Alan Greenblatt, the art director renowned for his work on PaRappa the Rapper. After holding various art director and game designer roles in New York, Choe launched his artistic career and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art fairs, including Art Karlsruhe in Germany (2022), SCOPE Miami Beach (2021), and CONTEXT Art Miami (2019). He earned international acclaim with an invitational solo exhibition at the Kunstverein Heppenheim in Germany (2017) and a special invitational exhibition at the Palazzo Bembo during the Venice Biennale (2019).



Vio Choe

Happy Cell

2023

Acrylic mixed media on canvas

116 x 91 cm

Eemyun Kang



강임윤(b.1981, 한국)은 영국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20여 년간 국제적인 활동을 이어오며 동시대 회화 안에서 독자적인 조형 언어를 구축해왔다. 작가는 특히 이탈리아 이주 이후 삶과 작업의 관계를 더욱 깊이 탐구하며 회화의 감각적 충위를 넓혀왔다. 가족의 형성과 양육, 타국에서의 시간과 경험은 그의 작업 세계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했으며, 이후 회화는 일상과 함께 시간과 감각 속에서 지속적으로 호흡하는 과정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현재 작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전은 티모시 테일러 갤러리(Timothy Taylor Gallery, London), 트론헤임 미술관(Trondheim Kunstmuseum, Norway), 국제갤러리(Kukje Gallery, Seoul), 트리시 클락 갤러리(Trish Clark Gallery, Auckland) 등에서 개최되었으며, 최근에는 밀라노를 중심으로 작업과 전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로마 한국문화원, 밀라노 카사 테스토리 미술관(Casa Testori, Milan), 아트선재센터, 주영 한국문화원 등의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베니스 비엔날레 연계 프로젝트와 유럽 주요 기관 전시를 통해 국제적 맥락 속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Eumyun Kang (b.1981, Korea) has developed a distinctive visual language within contemporary painting through an international career spanning more than two decades, primarily in the United Kingdom and Italy. Since relocating to Italy, Kang has further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and artistic practice, expanding the sensory dimensions of her painting. The formation of a family, motherhood, and the experience of living abroad have marked significant turning points in her artistic development. Over time, painting has become an ongoing process that unfolds alongside everyday life, continually engaging with time, memory, and sensory experience. She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Milan, Italy.

She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Timothy Taylor Gallery, London; Trondheim Kunstmuseum, Norway; Kukje Gallery, Seoul; and Trish Clark Gallery, Auckland, among others. In recent years, she has continued to develop her practice and exhibit primarily in Milan. She has also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at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Rome; Casa Testori, Milan; Art Sonje Center, Seoul; and the Korean Cultural Centre UK, London. Through projects presented in conjunction with the Venice Biennale and exhibitions at major European institutions, Kang has continued to establish her practice within an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context.



Eumyun Kang

Punta della lingua
2021

Oil, dry pigment, pastel on antique hemp
61 × 71 cm

Misha Kahn



미샤 칸(b.1989, 미국)은 뉴욕 브루클린에서 활동 중인 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의자, 거울, 조명, 테이블 등 가구로서 기능하지만 형태와 개념, 심미성과 실용성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위적인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상블라주(Assemblage)를 기반으로 한 '즉흥적 맥시멀리즘'으로 묘사되는 그의 작품 세계는 여러 재료와 수공예부터 최첨단 기술을 과감하게 조합하여 탄생한 우연적이고 유동적인 결과물들로 이루어진다. 2014년 뉴욕 휘트니 비엔날레에서 처음 이름을 알린 미샤 칸은 2021년 디자인 마이애미에서 'Best of Show Contemporary Work' 부문을 수상하였고, 2022년엔 독일 뮌헨의 빌라 스텝 미술관에서 첫 기관 개인전인 《Wobble Moon. Objects from the Capricious Age》를 여는 등 해외 주요 기관에서 활발하게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엔 미국 아트 서바이벌 쇼 'The Exhibit: Finding the Next Great Artist'에서 최종 3인에 오르면서 대중들에게도 강력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 그의 작품은 뉴욕 주 코닝 유리 미술관, 텍사스 주 달라스 미술관,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텍사스 주 휴스턴 미술관, 켄터키 주 루이빌 스피드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Misha Kahn (b.1989, US) is an artist based in Brooklyn, New York. His works function as furniture—chairs, mirrors, lights, tables—but also cross the boundaries between form and concept as well as aesthetics and practicality, only to be characterized by their avant-garde shapes. Described as “disheveled, spontaneous maximalism”—and based on a technique of assemblage—his world of art consists of serendipitous and fluid outcomes that are created through a bold combination of everything from handmade materials to cutting-edge techniques.

Since first making a name for himself in the art world at the Whitney Biennial 2014 in New York, Misha Kahn has been busy exhibiting at major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He received the award for “Best of Show Contemporary Work” at Design Miami 2021, and held his first institutional solo exhibition, Wobble Moon. Objects from the Capricious Age, at the Museum Villa Stuck in Munich, Germany, in 2022. In 2023, he also made a strong impression on the public when he was one of the three finalists on the American art survival show The Exhibit: Finding the Next Great Artist. His work is in the collections of the Corning Museum of Glass, New York; the Dallas Museum of Art, Texas;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California;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Texas; and the Speed Art Museum, Louisville, Kentucky.



Misha Kahn

Giving Yourself Bangs
2018
Resin, auto paint, glass
117 × 98 × 23.5 cm

Rob Wynne



롭 윈(b.1948, 미국)은 유기적 형태의 텍스트 및 추상조각 설치작품, 오브제, 드로잉, 회화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리의 무한한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아티스트다.

그는 2015년 서울 청담동에 개관한 하우스 오브 디올에 브랜드명 <J'adore> 텍스트 조각과 미러 글라스 장식이 전시되면서 국내에도 이름을 알렸다. 그는 녹인 유리로 마치 그림을 그리듯 원하는 형태로 부어 굳히고, 이에 은박을 입혀 재탄생한 롭 윈의 유리 조각 작품들을 통해 글라스 아트의 진정한 연금술을 보여주고 있다.

롭 윈은 2012년 플로리다 노턴 미술관, 2018년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 등 미국의 주요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지며 이 시대가 주목하는 예술가임을 알렸다. 그의 작품은 파리 퐁피두센터, 뉴욕 현대미술관 및 휘트니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Rob Wynne(b.1948, US), who majored in fine art at Pratt Institute in New York, shows the infinite potential of glass through a variety of media based on glass, including organic-shaped texts, abstract sculpture installations, objects, drawings, and paintings.

He made his name known in Korea with the exhibition of the brand name J'adore text sculpture and mirror glass decoration at the House of Dior, which was located in Cheongdam-dong, Seoul in 2015. Rob Wynne invites the audience to experience the true alchemy of glass art through his unique glass sculptures, which were reborn by pouring and hardening molten glass into a desired shape as if drawing a picture, and coating it with silver foil.

Rob Wynne has had solo exhibitions at major American art institutes, such as the Norton Museum of Art in Florida in 2012 and the Brooklyn Museum in New York in 2018, announcing that he is an up-and-coming artist of this era. His works are in the collections of Center Pompidou in Paris, MoMA and 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in New York.



Rob Wynne

Shine
2022

Poured and mirrored glass
43.2 × 61 cm

Sandra Vásquez de la Horra



산드라 바스케스 데 라 오라(b.1967,칠레)는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드로잉을 중심으로 조각, 사진, 세라믹,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작업을 해왔다. 그녀는 잉카와 마푸체를 비롯한 남미 토착 신화를 바탕으로 유럽 중심의 세계관을 해체하고, 신화적 존재와 인간, 비인간이 얹힌 혼성적 세계를 구현한다. 최근 연작에서는 흑연과 수채화, 밀랍으로 마감한 종이를 아코디언처럼 접는 '레포렐로(Leporello)' 형식을 도입해 드로잉의 평면성을 조각적 공간으로 확장한다. 남아메리카 안데스 지역에서 널리 숭배되는 어머니 대지(Pacha Mama)를 모티브로 한 이 연작들은 여성의 몸과 풍경, 생명과 신화가 혼재하는 원초적 풍경을 펼쳐 보인다. 작가는 모든 작품에 밀랍을 입히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사유에 깊이 뿌리내린 제례적 행위를 상징화한다. 밀랍은 마치 살아 있는 피부처럼 드로잉에 유기적인 질감을 부여하며, 동시에 작품을 봉인하고 보존하는 주술적 장막으로 기능한다.

작가는 2023년 케테 콜비츠 상을 수상했으며, 2022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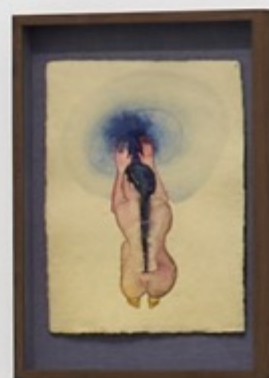
Sandra Vásquez de la Horra (b.1967, Chile) is a Berlin-based artist whose drawing-centered practice spans sculpture, photography, ceramics, and moving image. Rooted in South American indigenous mythologies—especially those of the Inca and Mapuche—her work dismantles Eurocentric worldviews and evokes hybrid realms where mythic, human, and non-human forces intertwine. In her recent series, Vásquez de la Horra adopts the leporello format—accordion folded paper treated with graphite, watercolor, and wax—extending drawing beyond two-dimensionality into sculptural space. The leporello works featured here invoke the archetype of Pacha Mama, the Earth Mother widely venerated in the Andes, presenting a primordial and hybrid landscape where the female body, the earth, life, and mythology are interwoven. Across her practice, the act of applying wax plays a crucial ritualistic role, symbolizing a gesture deeply rooted in her cosmology and spiritual traditions. The wax, like living skin, imparts an organic tactility to the drawings while also serving as a magical veil that seals and preserves.

She received the Käthe Kollwitz Prize in 2023 and participated in the Venice Biennale in 2022.



Sandra Vásquez de la Horra

Amazónica y niño del Sol
2025
Silverburg paper
28 × 38 cm



The Page Gallery

32-14 Seoulsup 2-gil, Seongdong-gu, Seoul, Korea 04769

+82 2 3447 0049

info@thepage-gallery.com

Tue - Sun 10:30 am - 6 pm
thepage-gallery.com

